

전문가들이 본 광산업 전망과 비전



강창석 <생산기술연구소남권기술지원본부장>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클러스터 활성화 절실”



고재상 <전자통신연구소남권연구센터장>

“소자·부품생산 한계
고부가 가치 창출을”



우병태 <전자부품연구소남권기술지원본부장>

“연구·지원기관 협력
핵심기술 이전 노력”



유은영 <한국광기술원장>

“당장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도 급선무”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장>

“지역 특화상품 발굴
틈새 시장 개척해야”



이인원 <광주과기원고등광기술연구소장>

“기술이전·생산까지
일괄 시스템 구축을”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융합바탕 기술력으로
세계시장 공략 나서야”

IT·BT·CT, 광기술에 녹여내자

광주의 미래 산업이 이끈다

1 융·복합이 살 길이다

광(光)산업은 광주 경제의 버팀목이다. 세계 경제침체 속에서도 자동차, 가전과 함께 광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2000년 지역특화산업으로 시작된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광주 R&D 특구 지정을 이끌어낸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광산업이 갈 길은 멀다. 기술 수준도 더 높여야 하고, 기업 규모도 늘려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광산업 연구기관과 지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주일보에 이들 연구개발·지원기관의 리더들에게 광산업의 전망 및 미래 비전을 물었다. 유은영 한국광기술원장, 강창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장, 고재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장,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우병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디지털컨버전스센터 본부장,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인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장 등이 대답해줬다.

이들 광산업 선도자들은 광통신 부품, LED 반도체 조명 등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연구기관·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 인력양성,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 확보 등도 중요한 과제다.

◇**융·복합으로 새 시장 개척**=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광주 광산업 발전의 미래는 광기술에 IT, BT, CT, 나노 기술 등을 융합하고 복합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세계 시장을 잡으려면 융합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재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장은 “소자 및 부품 등 단품 제조 기술 중심으로는 시장 확보는 물론, 부가가치 창출도 어렵다”면서 “시스템 업체와 연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광기술 기반의 융·복합 기술 개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호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광기술과 융합한 지역만의 특화된 상품으로 틈새 시장을 발굴한 뒤 선택받을 수 있는 디자인을 입혀 육성해나가는 전략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일사불란한 지원시스템 절실**=광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발판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우병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디지털컨버전스센터 본부장은 “광산업 클러스터 내 업체 대부분이 창업한 지 10년 미만의 업체들로 단기간에 매출을 올려 기업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힘을 쏟으면 힘

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지원 기관들의 기술 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광주의 327개 광산업체 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5.8%(19개)에 불과한데다, 설립한 지 5~10년 미만으로 고용 인원인 10인 미만인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별로 없는 노동 집약적 조립·생산 제품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인원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장은 “중소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지원 기관 등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 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상품 가치가 높은 원천·핵심기술을 개발에서부터 이전·시제품 제작, 생산까지 일사불란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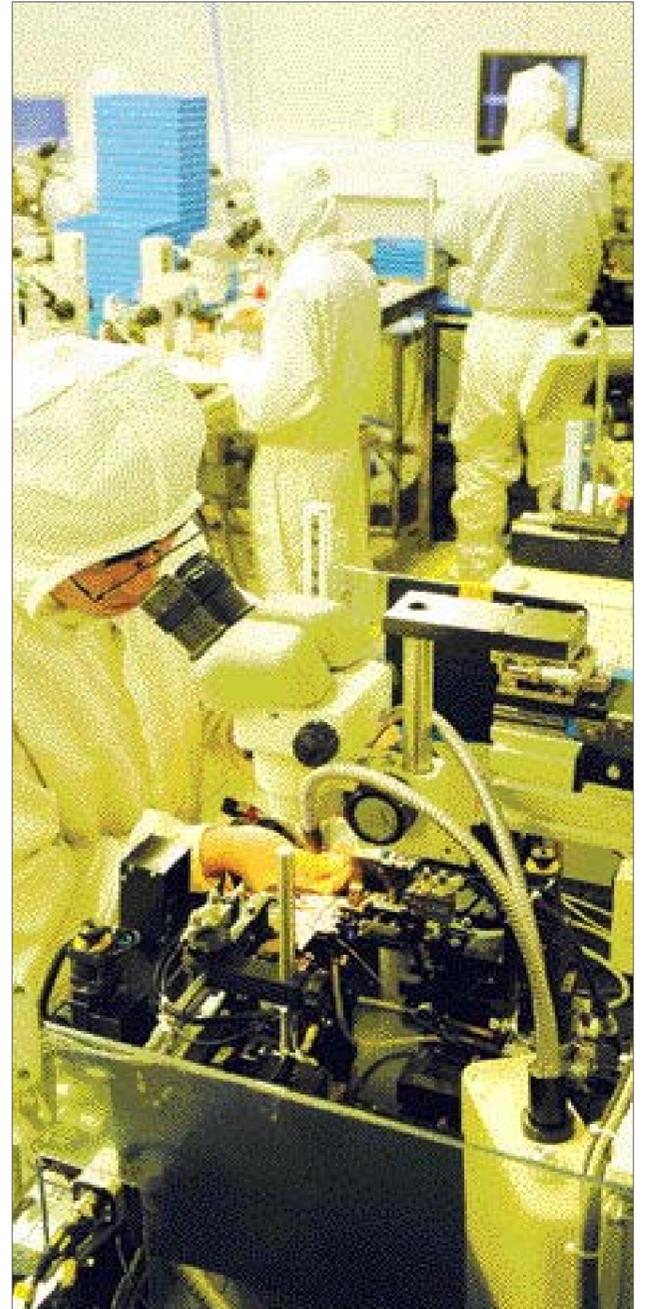
◇**“글로벌 기업 유치해야”**=“국내 및 세계 광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집적화한 클러스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은영 한국광기술원장은 “클러스터 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기술인력 양성을 비롯한 기업에 선도를 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시간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창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장은 “지역 산·학·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공격적 기업 지원책을 앞세워 경쟁력 있는 대기업·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클러스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 연구소 및 지원기관, 전문 품목 공급업체 외에 다양한 응용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 업체들을 유치,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업종 간 경쟁을 줄이기 위한 과감한 M&A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광기술원 연구원들이 광기술원 클러스터에서 LED 반도체 조명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